

2025 제주녹색당 총회 의사록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4:00~16:20 - 장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
- 참석: 총 190명(위임 160명, 현장 참석 30명)

○ 사전 위임자: 이태영 은종복 김민선 송동효 장귀금 김금순 김은주 조현주 김미선 신현철 고대승 양순임 김준영 김철석 김진영 박미영 김재경 오주연 서기성 김수오 천명광 한재형 홍희숙 오순옥 김영민 윤경숙 김윤희 홍영미 조남희 오상엽 한은정 이경원 민경석 김지은 김기대 양혜우 고이영 이세은 이미리 강경숙 오상운 신은순 이상언 김태희 선경 한애경 양은희 이진희 김민석 엄문희 손영익 강정희 김민주 김다운 최유라 박은영 강경연 박재은 서영석 심은주 김동민 진경표 신현정 양희주 김예환 정화빈 강민희 김정도 안명희 백운경 이한구 오영복 오문범 박선희 양우제 박소해 김주희 김연경 문수연 김정인 김용성 윤영주 최윤정 김연희 김미영 전찬준 최성희 오안자 이상영 변종석 문광조 최윤아 김상애 이두백 천민수 박소희 박문수 나은혜 주현우 강명숙 김태연 이보람 이강수 임정민 문미경 이승민 이광민 호수정주 오유비 황정철 김은아 한현진 부형울 고익준 백두산 김무경 김성우 추현우 김미영 김예중 이강성 유만임 좌성훈 김동규 김성옥 김현희 문예진 전영은 이시윤 진명섭 박해숙 이진섭 양상호 김혜령 현정임 양길영 박인혜 박재혁 김지희 오태연 김동신 강영여 고현숙 현은의 김병임 유재광 신경준 유혜경 고명현 고성웅 김미령 이보람 정조은 김동희 김지아 추수산 오용균 김영주 김창대 반영경

○ 현장 참여: 현성미 이성준 황용운 이선자 강민수 김순애 안재홍 황현호 김홍모 박홍준 김선 김현지 현영미 양철수 박은서 양인숙 최영아 부순정 이건웅 김동필 최희정 이은정 이성홍 최유리 김종옥 황은영 정근효 안석범 이상현 유용한

○ 참관: 윤원경

○ 성원 보고 및 개회 - 최유리 사무처장 권한대행 당권자 256명 중 위임 160명 현장 참석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 - 이후 3명 퇴장, 1명 추가 참석을 보고하고 김순애 운영위원장 개회를 선언함. - 의장으로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이, 서기로 이건웅 당원이 임명.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 안전확정 - 의장이 공지된 안전을 확정.

○ <안전 1>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최유리 사무처장 권한대행이 2025년 총회 준비 경과 보고, 2024년 전체 사업 평가 보고.
- 김순애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회 평가 보고.
-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정책위원회 평가 보고. 사업 평가 중 2024년 총선 평가 보고
- 최유리 사무처장 권한대행이 사업 평가 중 기후 정의 관점에서 예산 분석(기후정의예산학교) 평가 보고, 정당 연설회 정례화 및 당원 참여 확대 평가 보고, 당원들과의 소통 강화 평가 보

고, 한화우주센터 건립 대응 평가 보고, 청소년정치학교 평가 보고, 기타 사업 평가 보고, 2024년 일상 활동 정리 및 평가 보고.

- 양인숙 운영위원이 2024년 제주녹색당 결산 보고.
- 최희정 당원이 김혜미 감사를 대신해 감사내용 보고.
- 원안의 승인에 대해 강민수 당원이 동의하고, 최희정 당원이 재청하였으며, 참석 당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

<토론 및 의견>

이선자 당원: 대중교통 사업 평가가 빠져있다. 덕천리 투쟁과 관련해서 기록 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대중교통 관련은 작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내용이 빠져있고 올해는 정식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덕천리 투쟁과 관련해서는 논평으로 함께 했고 녹색당원 개개인이 함께 해주었다.

김홍모 당원: 덕천리 관련으로 김순애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 논평도 정당에서는 유일하게 녹색당이 도와주었고 당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안건 2> 2025년 사업 계획(안)

- 최유리 사무처장 권한대행이 2025년 사업 계획(안) 중 사업 목표, 사업 계획 중 주요 사업 발표.
- 양인숙 운영위원이 사업 계획 중 조직위원회 사업 발표.
-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사업 계획 중 정책위원회 사업 발표.

<토론 및 의견>

황용운 당원: 2025 사업계획 총회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을 드린게 2026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다. 2025년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형태를 조직, 정책적으로 세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때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 연속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겠다. 2025 사업계획은 2026 지방선거를 맞춘 한 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사업계획 수정인지 질의.

황용운 당원: 사업계획 수정보다는 의견이다. 적극적 지방선거 준비가 들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현호 당원: 황용운 당원이 잘 지적해주신 것 같다. 동감하고 관련해서 예산 등이 올해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자리에서 토론과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총준위에서 2026 지방선거 계획을 할 때 도지사 후보는 제외하고 판단을 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지역구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로 이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선거에 대한 얘기가 치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22 지방선거는 늦게 지방선거를 준비한 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이 되면 좋겠다.

안재홍 당원: 지역구 후보라는게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주소가 그 지역에 있고 가족이 그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출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북 안동 지역에 허승규님이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녹색당에서 그 지역구로 출마하라고 해서 그 지역구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지사를 한 번 더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비례 전략을 잘 만들어서 비례 전략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비례로 출마했을 때 우리가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성훈 당원: 지역선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정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 선거가 당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재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준비팀을 만들어서 준비팀이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지역선거가 우리 당에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 제주적인 스피커 역할로 써 비례대표 선거는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논의하면 좋겠다.

황용운 당원: 저도 비례선거도 좋은데 비례+도지사 전략이 아니면 녹색당을 알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례만 출마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김홍모 당원: 덕천리 비대위 계획 짤 때 지방선거 전략까지 만들었다. 의외로 투쟁이 일찍 끝났다. 준비,기획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과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지난 지방선거때 득표율이 꽤 높았다. 그 때는 제2공항와 기타 투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2025년 어떤 투쟁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를 생각해야 2026 지방선거 준비가 함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도에 군사기지화와 막가파식 난개발이다. 알뜨르 비행장에 스포츠센터 건립, 한화우주센터, 제2공항 등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절박함이다. 저는 이것에 상징적이고 핵심적인게 제2공항인데 도민회의에서도 거의 투쟁을 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이 제2공항 싸움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군사적이고 기후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재홍 당원: 김홍모 당원님은 어떤 제2공항 싸움이 필요할지 의견도 주시면 좋을 듯 하다.

김홍모 당원: 제2공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면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이번 제주항 공 참사 1차 원인도 버드스트라이크인데 현재는 너무 소극적으로 투쟁하는 것 같다.

박은서 당원: 올해 투쟁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준비모임을 꾸린다는 것, 제2공항 백지화하는 소모임을 만든다 했을 때 함께 하면 좋겠다. 주요사업으로 총준위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변경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성훈 당원: 필요 효율적인 것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녹색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될 때 힘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저는 김홍모 당원이 말씀하신 투쟁전선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 중 제2공항 투쟁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김종욱 당원: 지역구 광역의원 희망하시는 분 계시는지? 제주도 여건상 선거는 정당보다는 권당이런 느낌이 있다. 지금부터 지역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이 추천해서 출마하는 것 보다는 개인이 지역에 가서 지역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근효: 지금 2025 사업목표에서 2026 지방선거에 대한 목표가 녹색당이 2번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한 것 같은데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평가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지역구를 확정하고 하반기 선대위를 꾸리다고 되어있는데 2026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다. 도지사+비례후보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얻지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런 평가가 단순 득표율로 인해서 인지가 궁금하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총준위에서 18년 22년 선거평가를 보고 사업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다. 안재홍 당원이 18년 선거와 22년도 선거 경험을 말해주시면 좋겠다.

안재홍 당원: 도지사를 두 번 나갔던 것은 도지사 당선과 비례후보 당선이었는데 우리가 제주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하고 알릴지에 대한 것을 선거에 도민사회에 공유하자는 것이 가장 컸고 우리가 따로 비례 선거를 할 수 없으니 도지사 선거도 함께 하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 녹색당이라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잘 모른다.

양인숙 당원: 총준위에 참여하면서 선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것과 여력을 최우선시 하는데 저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이 선거에 빠진

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으로 동의했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녹색당이 출마한다고 당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도민들에게 의견 전달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선거 내용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사업목표 첫번째 수정 의견을 드린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의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드리면 녹색당이 지역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은 이미지와 캠페인성의 의존했고 지역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지역기반을 다지는 것 없이 선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하나씩 우리들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영국녹색당이 선전하는데 영국녹색당은 작은 지역을 하나 잡아서 10년간의 계획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영국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는 그것이 없다. 제주녹색당은 지역구 선거에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 보다는 지역구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최유리 당원: 제주녹색당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을지 등 지역구를 먼저 선정해도 좋을 것 같다.

이성홍 당원: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녹색당의 접근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선거의 본질을 따지면 그 지역마다 도의회에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정도 득표율을 가지고 어떤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를 오늘 모두 정할 수는 없고 양인숙 당원 의견처럼 사업계획 수정을 요청한다.

김홍모 당원: 저는 투쟁전선과 지선 연결에 대해 사업계획 수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비대위 투쟁에서 지방선거까지 계획 했던 것이 마을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졌을 때 찬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최선은 주민투표 전에 철회하는 것인데 만약 긴 싸움을 제주도내 있는 모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하려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봤다. 저는 이번에 돌아올 지방선거가 진보정당을 제주도정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2공항 투쟁기획단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루님: 저도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전에 광주녹색당에 있었는데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다시 원론적으로 후보를 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선자 당원: 당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진보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2026 지선 목표가 진보정치 지역에서 당선인을 내는 것으로 모아진다면 그런 쪽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현성미 당원: 김홍모 당원 의견을 들으면서 이선자 당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다. 진보정당이 설 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타 진보정당들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고민을 했다.

박은서 당원: 근효님 말씀처럼 26 지선 목표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 때 정의당 하나 하고도 정책 합의를 이루지 못해 힘들었는데 또다시 정의당, 노동당,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인 진보당, 제주의 정치 집단과 정책 합의가 가능한가. 26년 지선 목표가 제2공항 백지화인가, 녹색당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제는 슬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목표를 양인숙 당원님께서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 준비팀을 꾸리고 후보 확정 및 선거 전반을 기획한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제청 있는지? 이건웅 당원 동의 강민수 당원 제청. 1. 주요 사업에서 2026 지방선거 준비도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 준비팀을 꾸리고 후보 확정 및 선거 전반을 기획한다.로 수정.

이성홍 당원: 주요 사업이 사업 목표와 맞는지 모르겠다. 현재 제주의 중요한 사안이 제주군사기지화와 난개발이다. 예를 들어 함대사령부, 한화우주센터 언급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현안을 하나로 묶어서 안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건용 당원: 수정안으로 9번해서 제주지역 현안 대응 운동: 한화우주센터, 강정해군기지, 제주지역 군사화 등 제주지역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응한다.를 추가하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박은서 당원:

양인숙 당원: 목표와 계획이 맞게 되었느냐 했을 때 사업목표 제주지역 군사기지화 관련 내용이 없다 그래서 사업목표에도 이 부분을 추가를 하면 좋겠다.

김순애 운영위원장: 주요사업 1 지방선거 부분에서

양인숙 당원: 난개발 저항 투쟁 및 군사기지화 반대 투쟁 전략을 세운다. 의견 박은서 당원 동의, 이건용 당원 제청

김종옥 당원: 선대위가 발족하면 선대위가 투쟁 부분도 논의하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될 듯 하다.

*안건 2 수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사업 목표 수정

○기존안:

-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및 지역구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선대위를 꾸린다

○수정안:

-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 준비팀을 꾸리고 후보 확정 및 선거 전반을 기획한다

주요사업계획 수정

○기존안

-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및 지역구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선대위를 꾸린다.

○수정안:

- 2025년 상반기에 2026년 지방선거 준비팀을 꾸리고 후보 확정 및 선거 전반을 기획한다.

- 난개발 저항 투쟁 및 군사기지화 반대 투쟁 전략을 세운다.

○ <안건 3> 2025년 예산(안)

- 양인숙 운영위원이 2025년 예산(안) 발표

* 이은정 당원 동의 현성미 당원 제청으로 만장일치 통과

○ <안건 4> 규약 수정

-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규약 수정 발표

* 양인숙 당원 동의 황현호 당원 제청으로 만장일치 통과

○ <안건 5> 신임 임원 인준

-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신임 임원 인준 발표

* 현성미 당원 동의, 최희정 당원 제청 만장일치 통과

<서기: 이건용>